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0. 02.(목요일) 12:00

배포 2025. 10. 02.(목요일) 12:00

LA한국문화원, 해설이 있는 클래식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즈 시리즈 I' 상영

- 11월 5일, 스타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변신 -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한국의 예술의전당(SAC)과 공동으로 11월 5일,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 예술의전당 시리즈'의 하나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즈 시리즈 I>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 행사는 예술의전당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피아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김선욱이 지휘자로서 선보인 무대로, 섬세한 구조 감각과 치열한 해석으로 주목받은 공연이다. 베토벤 교향곡을 비롯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악보 속 논리와 감정을 균형 있게 읽어내며, 경기필하모닉의 단단한 앙상블과 함께 한층 성숙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마스터즈 시리즈'는 경기필하모닉이 매 시즌 선보이는 대표 기획공연 시리즈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정체성과 예술적 깊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마스터즈 시리즈 1'에서는 바그너 오페라 '오렌그린 1막 전주곡,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A장조, 작품 125,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3번 E $\flat$ 장조, 작품 55 '영웅' 등이 연주된다. 인터미션(중간 휴식시간) 없이, 115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지휘자로서의 김선욱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LA 필하모닉의 ‘서울축제’에 참가한 UCLA 이규립 교수가 상영회 전에 클래식과 김선옥에 대한 해설을 곁들일 예정이다.

이번 상영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예약은 KCCLA 웹사이트 www.kccla.org에서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kelly@kccla.org 또는 전화 (323) 936-7141로 하면 된다. 끝.

지휘 - 김선욱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MA)을 마친 후 2019년, 영국 왕립음악원 회원(FRAM)이 되었다. 200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피아노콩쿠르,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3년에는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김선욱은 2006년 18세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겼다. 동 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로열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시카고 심포니, LA 필하모닉,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NDR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도이치캄머 필하모닉,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런던필하모닉,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오케스트라, BBC 웨일스 내셔널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NHK 심포니, 할레 오케스트라, 버밍엄 심포니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 협연으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또한, 카리나 카넬라키스, 나탈리스 튀츠망, 토마스 쾨더가드, 투간 소키예프, 다니엘 하딩, 파보 예르비, 다비드 아프캄, 에드워드 가드너, 존 엘리엇 가디너, 정명훈, 오스모 벤스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키릴 카라비츠, 마렉 야놉스키, 사카리 오라모, 앤드류 맨지, 바실리 시나이츠키, 미하엘 잔데를링, 유리 바슈메트, 마크엘더경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연 무대를 갖고 있다.

김선욱은 지휘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KBS교향악단과 성공적으로 데뷔한 그는 본머스 심포니의 지휘자로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연주했으며, 마드리드 엑셀런티아 재단과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과도 호흡을 맞추며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한민국 광복 77주년 기념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김선욱의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에서 지휘봉을 잡으며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호평받았으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도 포디움에 오르며 언론과 관객으로부터 '젊은 거장'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김선욱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경기필을 이끌 예정이다.

피아노 - 바딤 콜로덴코 Vadym Kholodenko

피아노 바딤 콜로덴코 Vadym Kholodenko

“콜로덴코는 크리스털 결정과 같은 섬세함의 순간들을 가능케 하는 단단한 테크닉을 펼쳐냈다” - 더 가디언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바딤 콜로덴코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센다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슈베르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 크리스티안 마첼라루,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 카즈키 야마다, 토마스 손더가드 등의 지휘 아래 런던 필하모닉,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스페인 국립 교향악단,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미국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한 바 있다.

바딤 콜로덴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소유자로, 하르모니아 문디 레이블로 그리그와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음반과 최근 발매된 베토벤과 체프스키를 페어링한 음반 등을 발매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BBC 음악 잡지 편집자 선정상, 올해의 황금 디아파종상 등을 수상했다.

2024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2024년 취임한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마스터즈 시리즈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익숙한 레퍼토리와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시너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리즈 공연이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때부터 시작과 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중점을 뒀던 김선욱이 하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 시리즈로, 바딤 콜로덴코, 라이너 호벵, 파스칼 모라게스 등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없던 협연자를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본 공연의 묘미다.